

한국 축구 U-20 '4년전 그날처럼...다시한번 Victory'

에콰도르 넘어 8강 "가즈~아"

한국, 내일 오전 6시 에콰도르와 U-20 월드컵 16강 단판 승부

공격수 박승호 부상 이탈·이동 지연 컨디션 조절 '변수'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남미의 북병' 에콰도르와의 리턴 매치로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단판 승부에 들어간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2일 오전 6시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에콰도르와 2023 FIFA U-20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29일까지 이어진 조별리그에서 프랑스를 2-1로 잡고 온두라스(2-2), 감비아(0-0)와는 비기며 감비아(2승 1무·승점 7)에 이은 F조 2위(1승 2무·승점 5)로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한국은 4골을 넣고 3실점을 기록한 가운데 매 경기 승점을 챙기는 '실리 축구'를 펼치며 FIFA 주관 남자 대회 사상 첫 결승 진출과 준우승을 이룬 2019년의 영광 재현을 향한 첫걸음을 무난하게 뒀다.

감비아와의 3차전이 열리기 전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이 조기 확정된 덕분에 김은중호는 감비아전에

선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단판 승부에 대비할 수 있었다.

16강전에서 격돌할 에콰도르는 한국이 역사를 새로 쓴 2019년 대회 때 4강전 상대다.

4년 전 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 당시 정정용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이강인(마요르카)의 패스에 이은 최준(부산)의 결승골에 힘입어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결승 진출의 기쁨을 누리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준우승을 달성했고, 에콰도르는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선 B조 2위(2승 1무·승점 6)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에콰도르는 16강 상대 가운데서는 가장 해볼 만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 16강전에

서 우루과이나 브라질과 만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을 피하고 에콰도르를 붙게 된 건 호재라는 분석이다.

에콰도르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11골을 터뜨려 본선에 출전한 24개국 중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이긴 했으나 9골은 최악 체로 평가되는 피지를 상대로 나온 것이다.

2007년생 공격형 미드필드 유망주 켄드리 파에스나 2004년생 공격수 저스틴 쿠에로(이상 인데펜디엔테 델 바예) 등은 경계할 선수로 꼽힌다.

온두라스와의 조별리그 2차전(2-2 무)에서 골을 넣은 뒤 발목 골절상을 입은 공격수 박승호(인천)가 더 뛰지 못한 채 결국 조기 귀국길에 오르며 전력에 손실을 보게 된 건 김은중호로서 아쉬운 부분이다.

여기에 FIFA가 선수단 이동을 위해 제공하는 전세계 준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조별리그가 열린 멘도사에서 16강전이 열릴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로의 이동이 하루 가까이 지연된 것도 대표팀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김은중 감독은 현지 도착 뒤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전해진 인터뷰에서 "피로감이 있긴 하지만, 빨리 회복해서 경기 날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WBC 대표 선수 3명 "음주 인정"

"호주·일본전 전날 야나"·KBO, 추가조사 후 조치 결정

한국 야구 대표로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선수 중 3명이 대회 기간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프로 선수들이 주축이 된 야구대표팀을 운영하는 KBO 사무국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WBC 1라운드 기간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지목된 세 선수의 소속팀에는 경위서를, 세 팀을 포함한 9개 팀에는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KBO 사무국은 먼저 경위서를 확인한 결과, 세 선수가 술집을 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일본프로야구팀과 평가전을 오사카에서 치르고 본선 1라운드 장소

인 도쿄로 이동한 3월7일과 경기가 없는 휴식일(3월11일) 전날인 10일 오후에 술을 마셨다고 선수들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세 선수는 한국 대표팀의 WBC 성적을 좌우할 경기로 첫순에 꼽힌 호주전(3월9일)과 일본전(3월10일) 전날인 3월8일, 3월9일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KBO 사무국은 경위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온라인 매체는 30일 대표팀의 세 선수가 3월8일과 9일 도쿄 유희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도해 큰 파장을 낳았다.

/연합뉴스

나폴리 '철벽 수비수' 김민재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후보에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후보에 올랐다.

세리에A 사무국은 3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2-2023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 후보 3명을 발표했다.

김민재는 소속팀 나폴리 동료 조반니 디로렌초, AC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와 함께 후보에 올랐다.

단단한 수비를 일컫는 '빗장 축구'로 정평이 난 세리에A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은 것이다.

2022-2023시즌 나폴리 소속으로 세리에A 무대에 데뷔한 김민재는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괴물 수비수'로 이름을 날리며 리그 우승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지난해 9월에는 세리에A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2019-2020시즌부터 시상하는 세리에A 이달의 선수에 아시아 국적 선수가 선정된 것은 김민재가 최초였다.

김민재가 최우수 수비수를 받으면 바르키프 입성 첫 시즌에 팀의 우승과 수비수로서의 최고의 타이틀을 모두 일구게 된다.

한편, 김민재는 6월에 군사훈련을 받아야 해 A매치 2연전에 모두 빠진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김민재 측에 훈련 입소일이 6월15일로 정해졌다고 전달받았다. 이번에는 대표팀에서 뛰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챔스필드를 친환경 야구장으로'

KIA·광주시, 자원순환 문화 조성 업무협약 체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광주시가 친환경 야구장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

KIA는 지난달 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광주시와 '친환경 야구장 및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KIA는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천 유도 홍보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화용기를 자칫해 챔피언스필드 내에 위치한 식음료 매장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는 10% 할인



지난달 30일 열린 KIA-광주시 업무협약식에서 서재학 KIA 단정원장과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이 협약서에 사인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박희중기자

'막강 화력' 광주FC, 15R '최고의 팀'

티모·아사니 '베스트11' 선정

프로축구 광주FC가 15라운드 최고의 팀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1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15라운드 6경기를 평가한 결과 광주를 베스트팀에, 득점을 기록한 티모와 아사니를 주간베스트 11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달 28일 열린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탄탄한 수비와 끈끈한 조직력, 막강한 화력을 선보이며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티모다. 티모는 후반 30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시즌 1호골을 기록, 팀을 승리로 이끌며 경기수훈선수(MOM)에



선정됐다. 아사니는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와 드리블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후반 38분 시즌 5호골을 기록하며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박희중기자

다시 깨어난 승리 본능 안방서 포항도 잡는다

광주FC, 3일 안방서 포항과 맞대결



깨어난 승리 본능으로 7경기 무승의 고리를 끊어낸 광주FC가 홈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16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의 뜨거운 공격력이 완벽하게 살아났다.

지난라운드 수원FC 원정을 떠난 광주는 먼 원정길과 엄청난 폭우 속에서 2-0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FA컵 포함 원정 3연전에서 2승 1무. 그리고 2연승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 광주의 다음 상대는 포항. 광주는 홈에서 진행되는 경기인 만큼 홈팬들에게 화끈한 공격과 연승으로 상승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광주의 공격 축구가 빛을 발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무려 20개의 슈팅(유효슈팅 10개)을 퍼부었으며 인천전과 수원FC전에서 코너킥을 통해 골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득점 루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순민과 정호연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으며 티모와 안영규는 탄탄한 수비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음 뿐 아니라 득점까지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아사니도 강력한 중거리 슈터로 시즌 5호골을 신고하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이번 상대 포항은 7승 6무 2패 승점 27점으로 4위에 올라있다. 2위 FC서울과 승점 동률이며 최근 FA컵과 전북전 승리 포함 최근 5연속 무패(3승 2무)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



광주FC 아사니가 지난달 28일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팀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38분 백기골을 터뜨린 후 포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다. 또 김기동 감독이 구축한 조직력 축구와 함께 제카, 오베르단, 김인성, 백성동, 김승대, 고영준, 이호재 등 강력한 스쿼드가 장점이다.

중요한 일전에서 만나는 난적이지만 더 이상의 '포항 징크스'는 없다.

광주는 지난 2021시즌 포항에게 첫

승을 거두며 징크스를 깬 뿐 아니라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과 함께 역습을 대비한 짜임새 있는 수비로 상대 공격을 묶고 득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광주가 포항을 꺾고,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